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대한민국 제1의 관문에 새로운 감각을 입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which opened on January 18, boasts the curved, 50-meter high ceiling comprising thousands of louvers and the spacious landscaping area reminiscent of a botanical garden. Hyundai E&C materialized three concepts of art, eco and smart by capitalizing on unique elements rarely offered by airports across the world.

▶ Continued on page 6,7

최고 50m 높이에 수천 개의 루버로 이뤄진 곡선형 천장, 식물원을 연상케 하는 넓은 조경 공간... 1월 18일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세계 어떤 공항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를 담아 제2여객터미널 실내에 '아트' '에코' '스마트' 콘셉트를 구현했다.

▶ 관련기사 6, 7면



*Toward
Global
Top Tier*

현대건설 무술년 마수걸이... 총 11억 달러 규모 싱가포르 매립공사 수주

싱가포르 투아스 터미널 Phase 2 매립공사... 일본 펜타오션·네덜란드 보스칼리스사와 공동 수주

현대건설이 2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총 11억 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아스 터미널 Phase 2(Tuas Finger 3) 매립공사를 따내며 2018년 마수걸이에 성공했다. 일본의 펜타오션·네덜란드의 보스칼리스사와 공동 수주한 이 프로젝트의 현대건설 지분은 35%(약 3억9000만 달러, 약 4100억원)다.

이 공사는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이 발주한 해상 매립공사로 싱가포르 서단에 위치한 투아스 항만단지 지역에 면적 387ha(헥타르)의 신규 매립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확장된 국토는 향후 항만시설 부지로 사용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총 108개월로 2027년 3월 준공 예정.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전에서 양질의 해상공사 실적, 우수한 기술력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주는 또 2014년부터 현대건설이 수

행 중인 투아스 핑거 1 매립공사에 이은 대형 해상 매립공사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국토의 7%에 달하는 매립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해상 분야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점하고 있다”며 “향후 싱가포르 국토개발 장기계획에 따라 유사한 프로젝트가 지속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수주로 해상 매립공사 수주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1981년 풀라우 테콩 매립공사로 싱가포르에 처음 진출한 이래 파시르 판장 터미널 3/4단계 공사,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공사 등 총 84건, 138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다.

현재 현대건설은 싱가포르에서 준설 및 매립 공사를 포함해 토목·건축 공사 등 총 10개 현장, 26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